

성찬예배 해설 17

안티폰 (2022.1.23)

성찬예배에서 “평화의 연도” 다음에는 “안티폰” 세 개를 부릅니다. “안티폰”은 시편에서 선택되는데, 여기에 구복단이 더해질 때도 있습니다. (역자주 : 그리스의 수도원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제3안티폰 때 찬양송 대신 구복단이 불리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시편과 어떤 성가를 부를지를 알려주는 티피콘(예배지침)이 있는데, 이는 그 내용이 교회가 그날 기념하는 사건이나 축일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찬양시 두 편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속으로부터 그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여라.”라고 시작하는 시편 103편과 “내 마음 주를 찬양하여라.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여라.”라고 시작하는 146편입니다. “안티폰”이라는 명칭에 대해 설명 드리면, 그리스어로 “안티폰적이다(αντιφωνικά)”라는 형용사는 ‘서로 번갈아가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둘로 나뉜 성가대 양쪽에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이 시편과 성가를 부르기 때문에 “안티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이 시편 구절을 읽고 같이 참여하도록, 모두가 봉독자를 따라 낮은 목소리로 읊는다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티피콘에서는 우리가 어느 날에 “구세주여 성모님의 증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나 “부활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와 같은 후렴구를 불러야 할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축일에 따라 이 후렴구 말고 다른 후렴구를 부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안티폰을 통해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세주이자 구속주’라는 인식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온 교회가 용기를 얻기 위해 떠올리는 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테오토코스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증보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구세주여 성모님의 증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당신이시나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있는 이들 중에 우리를 구원할 이가 없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느님의 말씀이 알려주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정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시라는 이 같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증보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안티폰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나이다. 알릴루

이야.”라고 부릅니다. 알릴루이야는 “주님을 찬양하여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백성, 하나의 사회이며, 회중 전체는 “주님을 구원을 바라는 이들”으로써 한 세대를 이룹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믿는 이 세상의 일부라는 것과, 이 세상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과 외부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소망과 신뢰를 맡긴 백성이며, 역사의 종말 시간에 바로 하느님께서 승리자가 되실 것을 확신하는 백성입니다.

한때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졌지만 주님의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빛나는 가능성이 주어졌음을 잊지 맙시다. 이 새롭고 빛나는 가능성은, 우리가 더 깨어 있는 상태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 안에서 해방되고 부활하여, 하느님의 사랑의 낙원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부활을 통해 모든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은총과 구원을 주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티폰과 두 번째 안티폰은 우리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워주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도와주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메마르고 불안한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안티폰에는 7세기 황제 유스티니아노스가 영감을 받아 작사한 성가가 추가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시며 영생하시는 독생자이시여...”라고 시작하는 성가입니다. 이 놀라운 성가는 신성한 경륜의 신비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전에는 당신의 모든 신성한 영광과 위엄으로 존재하셨지만, 역사의 어느 시점에 겸손히 낮아지셔서 “성령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광 받으시”지만,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삶에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성가는 인류의 구속(해방)을 위한 신성한 경륜의 전체 신비를 단지 몇 줄의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영광스러운 특징을 지닌 안티폰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부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데, 이 연합의 기쁨은 구세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모심으로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안티폰과 두 번째 안티폰 이후에 보제는 “또 다시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시다.”라고 시작하는 소연도를 외칩니다. 소연도는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지켜 주소서.”와 “지극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복되시고 영화로우신 평생 동정녀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분들처럼 우리의 온 생명을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 맡깁시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성찬예배와 거의 모든 매일의 전례에서 이 소연도를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 소연도를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연도가 우리 정교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힘, 보호, 동정, 자비, 구원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 등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보제가 소연도를 외치고 있을 때, 사제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문을 읽습니다. 첫 번째 안티폰 이후에 읽는 기도문에서 사제는 주님께 이 거룩한 성당에 모인 신자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지극한 자비와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두 번째 안티폰 후에 드리는 기도에서, 사제는 두세 명의 신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 드리면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현세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후세에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티폰 부분이 마무리됩니다.